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## 2010년 미국 손해보험산업 회복 불투명

- 미국 보험전문조사기관인 어드바이젠(Advisen)은 2010년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산업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.
  - 기업성 보험(commercial insurance)의 보험료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몇 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며, 그 주기와 진폭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다르게 나타남.
  - 최근 몇 년간 기업성 보험시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2010년경에는 상승 반전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, 경기침체의 여파로 2011년까지 보험료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수정 전망함.
  - 일부 손해보험 종목의 평균 수입보험료는 2004년 이후 점진적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, 일반 책임보험의 평균보험료는 2001~2003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2000년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임.
  - 낮은 보험료는 보험영업이익에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보험사들과 보험중개사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어드바이젠 관계자는 경고함.
- 보험료 하락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악화는 지역별, 사업형태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나 보험중개사와 종업원 상해보험(Worker's compensation insurance) 비중이 높은 보험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함.
  - 보험사의 경우 금융시장 회복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증가로 보험영업이익의 손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으나 보험중개사의 경우 투자자산이 미미하며, 보험사의 사업비 축소 움직임으로 중개수수료의 인하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음.
  -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실업률이 2010년까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여타 다른 보험종목에 비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.

(Insurance Journal, 10/22)